



## 어린이와 讀書家 시리즈의 이야기

김영자  
서울대어학연구소강사

1977年 5月 美國 마이아미에서 開催된 國際讀書會議 第22回 年次大會에 參席하였을 때 讀書教育 實地見學이 있었다. 幼稚園서부터 國民學校 6學年程度 어린이들에게 學級擔任先生이 學級全體 프로그램으로된 教材를 使用하고 全部 讀書教育을 實施하고 있는 school였다. 이것은 教材가 全部 讀書家시리즈로 되어 있고 各學級마다 讀書教育을 充分히 支持할만큼 各種 圖書가 가득 찼었다. 學級마다 조그마한 圖書室이라 해도 過言은 아닐 程度였다. 이 프로그램을 國家에서 示範 支持하고 있으며 行動課題 또는 理解基礎課題라고도 이르는 教育目標를 세우고 出版社에서 積極 後援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上 볼 수 있었다. 열뜻 보기에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같기도 보이고 잘 드러다보니 각 어린이는 부지런하고 매우 바쁘게 活動하고 있었다. 低學年에는 많은 教育機器가 引入되어 있었고 조곰도 어색하지 않게 作業을 繼續하고 있는 模樣은 어린이 自體가 主人公이었다. 1時間 가까운 說明속에서 至今도生生하게 귀에 남아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先生自身 열심히 아르키는 동안에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教師가 아르키는데 바쁘고 부지런할 때면, 어린이들은 自然 바쁘고 부지런하게 배우게 된다는 것, 이 시스템은 學級管理가 가장 簡素化되어 있고 教材自體가 細密하게, 注意해야 할點 時間表 짜는 것마저 研究되어 있고 어린이 中心問題을 다루워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讀書家시리즈에 의한 學校管理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익숙해지는 것을 特徵의 하나를 들고, 그것은 어린이와 先生사이에서 直接的인 統合의 教材를 通해 이루워지는 깊이에 親密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學級의 환경에서도 教育目標의 評價와 아르키는 行動이 배우는 活動과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루워진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每日 每日의 讀書 成長이 評價表에 기록되어 先生의 努力과 活動이 어린이의 記錄表와 아울러 손쉽게 볼 수 있었다.” 이것을 볼 때 각 어린이에 대한

必要로하는 技術과 學習能力에 맞는 正確하고도 完全한 知識을 學級 全體 크기에서 把握할 수 있음으로 教師는 아르킬 때 도움이되는 것은 分明했다. 學級管理에도 複雜한 神經을 쓰지 않고도 正常의으로 讀書家 시리즈 研究와 더불어 모든 어린이의 個個人 目標에 到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의 効果의이고 참된 讀書를 그 讀書 시리즈를 使用함에 따라 教師의 讀書 education의 目的과 統合하게 됨으로 基礎讀書 education에서 立證된 解決方法을 찾게 됬다는 實驗學校의 하나를 直接見學하게 된 事實을 無限히 기뻐했다. 이 讀書家 시리즈의 著者의 말에 의하면 누구든 教師이면 이런 教材가 있었으면 하고 무척 원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감히 實踐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럼으로 이 讀書家 시리즈는 學級全體 讀書 education에 重要한 position을 차지하고, 高度로 効果의인 面을 들면, 다음 讀書教材段階에 들어서기 前에 각 어린이에게 必須해야만 할 讀書技術을 完全히 習得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國家의인 權威를 가지고 있는 教育目標調査와 教育目標를 基礎로 한 課程 어떤 때는 行動課題 또는 理解基礎로 한 課題라고도 볼 수 있다.

이 讀書家 시리즈의 著者의 하나인 Dr. Cohen은 1969年 教育書籍中 가장 重要한 20卷속에 1卷으로 뽑힌 “Teach them all to read”的 冊을 냈고 讀書分野에서는 가장 尊敬받는 專門家의 하나로서 알려 있다. Dr. Hymn은 理解을 基礎로 하는 讀書education과 算數課程에 많은 影響을 끼친 2,000餘 school에 걸쳐 教員向上에主力을 둔 計劃에 參與한理事로서 이 分野에서의 成功은 學級先生으로서 오랜 經驗을 쌓 밀바침이 研究와 實踐을 結合시킨 또 하나의 讀書家 시리즈의 著者이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獨特한 것으로 어린이들이 理解할 수 있는 讀本을 만들기 위한 것을 教育目標의 첫째로 삼고 規定시워 있다. 그후 各 內容要素 各 어린이의 活動, 各教師의 教育計劃은 어린이들이 그러한 課題을

實地로 習得할 수 있는 것을 믿고 開發한 것으로 보인다.

讀書家 시리즈는 프로그램에 대한 仔細한 說明을 한 經過와 學習課程을 5段階로 나누어 먼저 Placement Test를 하고 구름을 치운 다음任意의 pre-test로서 그들의 必要한 것을 診斷하게 한다. 다음 段階는 教師가 아르키는 것이다. 教師는 教師用 冊에 重要한 點, 한 課에서 꼭 아르켜야한 點 등 主로된 學習帳의 도움을 줌으로서 한 課에 10種의 각 어린이가 스스로 自習할 수 있는 教材를 各己 目的에 따라서 工夫하게 된다. 세 번째는 어린이가 배운 것을 post test로서 實際로 배운 것의 學習狀況을 알 수 있다. 萬一 어린이의 理解가 不足하여 더 習得해야 할 경우에는 第4段階가 다시 마련되어 있고 이것으로 다시 되풀이하여 아르킴으로 어린이의 努力を 教師는 補充해 준다. 어린이 스스로가 各己 目標에 따라 計劃을 마련하고 있다. 5段階에서는 读書 그 自體이다. 读本속에서 그들은 이때까지 배워온 諸般 技術을 適用하게 된다. 读本에 나타나는 이야기 自體가 以前에 學習한 技術을 둘러 싸고 맨들에저 있기 때문이다. 각 이야기에 따르는 疑問이 끝까지 따라 가게 함은 배운 技術을 適用할 수 있게 細密히 注意한 點이다. 最後의 读書教育의目標는勿論 진짜 冊을 읽는 것이다. 이것은 學級圖書文庫에 備置시켜 놓고 어린이의 많은 새로운 著書가 恒常 어린이 손이 다을 수 있는 곳에 놓여 있다.

讀書家 시리즈에는 세 가지 흐름을 볼 수 있다. 먼저 單語 공격에는 發音과 構造分析을 비롯하여 두제로 單語 아니 語彙의 理解, 세번째로 技術研究이다. 이것은 恒常 서로가 反覆해 가며 進行하게 된다. 이 세 가지가 각各 教材는 다르지만 學年에 따라 原本인 读本에 나오는 같은 單語나 語彙가 마련되어 있다. 모든 語句의 技術에는 意味內容을 아르키는 것으로 低學年에는 發音을 아르키고 高學年에서는 構造analysis이다. 語彙理解 技術은 读書準備段階에서 아르키기始作한다. 왜냐하면 시리즈의 目標는 어린이가 진짜 일찍 암치 읽을 수 있도록 練習하기 때문이다. 低學年에서부터 读書學級文庫를 읽는데 필요한 語彙를 아르키게 된다. 高學年에 있어서는 生涯教育의 读書로서 必要한 理解技術을 完全히 출짓기 위해 到達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技術研究는 5學年서부터 새로운 部門으로 設置하고 初步者的 學習技術은 準備段階를 包含하여 读本을始作하기 때문에 重要한 것이다. 重要한 读書家 시리즈 내용 속에서 技術研究를 實地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歷史上 처음으로 試圖한 것이라 한다. 技術研究는 内容部門의 读書를 包含하여 读書標準試驗, 读書, 算數, 科學, 社會教育, 願書記入 등生存에 必要하는 넓은範圍의 技

術이다. 어린이의 读本어휘 理解, 單語공격과 學習技術을 通하여 读書의 經驗을意義 있게 할 수 있음을 細密히 提示하고 있다. 모든 學習장은 어린이들을 부지런하고 바쁘게 만들고 한 技術을 아르키기 위하여 한 課에 5枚 내지 10枚의 開發의인 學習研究가 展開된다. 각 技術의 練習을 通하여 實踐이 따르기 때문에 教育은 避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學習後의 練習은 自體의 習得이 物에 배지 않는 어린이를 둑게 하고 追加의 教育을 補充하게 하는데 必要하게 된다. 一連의 學習順序는 教育目標를 위한 問題가 簡單한 것으로 부터 複雜한 것으로 나아가, 어린이들의 技術向上에 自信을 갖게 한다.

아르키고 또 아르키고 하는 사이에 學習帳을 通한 完全한 教育이 豐盛해지고 어려운 技術을 導入하기도 하고 技術의 細密한 點까지도 說明하여 技術을 아르키고 追加의 機會를 많이 갖게 만든다. 读書는 读書經驗에 의해 豐富해지고 言語活動이 廣範圍하게 이르기 마련이다. 技術을 習得한 根據가 언제나 固定되어 post-test의 結果를 알게 된다. 읽는 것을 準備할 때 이것은 重要한 일이라. 어린이들이 读書에서 얼마나 向上되었나 進度를 볼 수 있는 것도 重要한 일이다.

나아가서 读書는 어린이들에게 苦痛스러운 活動이 아니고 가장 自然스러운 空氣와 물이 언제나 우리들의 周邊에 있드시 读書行動도 어린이의 生과 더불어 發展하고 向上하여 糧食이 되어 간다. 读書란 어린이에게만 重要한 것이 아니고 人間이 산다는 存在와 더불어 항상 좋은 벗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어린 時節서부터 读書에 대한 學習技術을 物에 지니게 하면 어른이 되어 새삼스럽게 必要에 의해 技術習得에 神經을 쓰지 않아도 自然스럽게 豐盛해 감을 말함이다. 學級 全體 프로그램으로 實施한다는 것이 读書家 시리즈를 使用함으로 實驗學校는 全美에 걸쳐 어느 곳에서라도 볼 수 있다한다. 뉴오리엔스에서도 이와 같은 實驗學校 見學을 하게 되었다. 读書家 시리즈의 細密한 内部檢討는 다음 機會에 미루기로 하고, 學級擔任 全部가 读書指導를 할 수 있는 基礎的 技術習得이 어린이 보다는 한발 앞서야만 한다는 事實은 뚜렷하다. 이 读書指導는 決코 國語科의 屬한 것도 아니고 圖書館에만 屬한 것도 아니며, 人生에 있어서 读書를 必要로 하는 全領域에 걸쳐 基礎的인 理解思考機能의 行動科學이라는 點, 어린이의 活動에 많은期待를 갖게 된다. 처음 본 读書家 시리즈의 示範學校 어린이들 光景이 뚜렷이 남아 있다.

學年別 读本의 内部檢討에 들어가 보기로 한다. 1學年에 있어서는 读本에 들어가기 前에 글자 하나 하나에 대한 分別을 確實히 하며, 數字는 1에서 10까지

理解하게 한다. 그것은 쓰여진 教具를 充分히 使用할 수 있게 마련된 것이다. 學習課題內容을 보면 ① 子音과 母音의 區別, ②에서 ⑨까지는 子音에서 始作되는 것 ⑩에서 ⑭까지는 子音으로 끝나는 것 ⑮⑯은 子音이 中間에 오는 것 ⑰⑱은 子音이 어느 곳에 있던지간에 發音記號로서 使用되는 경우 등이다. 한 課題에 반드시 5枚로서 한 課의 課業을 遂行해 간다. 이 다섯 가지는 難易度에 의해 차차 複雜해 간다. 1課 A에는 알파벳 26字를 提示하고 櫃外에는 그림을 그려 櫃內에 글자와 막기 構成되었다. 母音과 子音에 區別로서 子音위에 동그라미로서 表示하게 되어 있다. 1課 A에서 E까지의 課業은 어린이 스스로가 동그라미로 表示하게 된다. 發音記號 讀本에 나오는 單語는 120. 어린이가 1課의 學習이 끝나면 반드시 post-test를 하게 된다. 이結果에 의해 理解가 不充分하면 다시 되풀이하여 教解가 指導하게 된다. 課題學習帳속에서 提示된 指導가 어린이의 活動을 돋게 된다. 各活動은 言語技術이 讀書指導에 이끄러 가게 된다. 讀書家 속에서의 讀書는 恒常 말하는 것과 쓰는 것과 듣는 것이 統合되어 目的에 이르게 하는 方法이기도 하다. 어린이가 課題를 學習할 때 困難을 느낄 때면 우선 技術導入의 說明을 充分히 해준다. 課題는 技術을 쉽게 習得하게 되어 있다. 1課를 進行시키는데 pre-test 課題 post-test 그리고 나서 讀本에 들어 간다. 授業時間活動에서 듣기 練習을 어린이 각者에게 알파벳 카아드를 準備시키고 그中母音만을 따로 내고 子音만으로 알파벳順序로 놓으라고 일려 준다. 어린이들은 이것을 듣고 각者活動이 시작된다. 말하는 것은 黑板에 母音만을 한자씩 놓고 子音을 베껴서 單語를 만든다. 만들어진 單語를 큰 소리로 읽기 한다. 쓰는 것은 각 어린이에게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 준다. 黑板에 이미 써놓은 글짜를 子音은 白墨音은 色으로 쓰라고 한다. 子音만을 골라서 베껴 보라고 한다. 讀本으로 들어가서 語彙는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up, down이다. 말은 말답지 않는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 앉는 것 같아 그러나 말은 조고만한 나무가지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너무 크기때문에不安을 느낀다. 나무가지는 뿌리지고 말은 미끄러져 내려온다. 1課에 提示된 것은 단지 up, down 두 單語와 그림 셋 뿐이다. 말이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림 나무가지에 말이 앉아 있는 그림. 나무가지가 뿌리져 말이 가지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림. 이속에는 말이 주인 공이고 어린이들은 올라가고 내려온다는 概念을 그림과 더불어 알게 되어 있다. 이것은 어린이의 想像力を 돋게 하고, 어린이 스스로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한다. 教師가 發音하는 것을 따라 正確히 읽는 練

習을 한다. 1課의 學習이 끝난 다음 讀本의 問題가 提示된다. ① “사다리를 내려 오기전에 너는 어떤 길을 가야하나?”라는 데서, 내려 온다는 밑에 선을 긋고 있다. 正答은 “올라 간다”이다. ② 말이 나무가지 속에서 있은 후 어디로 갈 것이다. 내려 간다 ③ up, down의 子音의 이름을 말하라. p,d,w,n ④ up, down 어느 쪽이 子音이 많은가? down 어린이와 先生과의 이야기에서 先生이 ① 나무를 올라가는 動物을 본 일이 있느냐? 그 이름은 무엇인가?”원숭이, 뱀, 고양이, 새 등. ② “너이들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도움되는 것은 없느냐? 그 이름은?” “에스카레타, 에레페타, 階段, 미끄럼타기, 그네 등” 어린이들이 이야기가 재미있다면 즐겨 읽을 수 있는 關連된 이야기 冊 3卷을 紹介해 준다. 讀本 內容은 1. 課 올라간다, 내려간다 2. 말위에 생쥐 3. 작은 생쥐와 큰 생쥐 4. 모자를 보라 5. B.C.D놀이 6. F-G-H놀이 7. J-K-L 놀이 8. M-N-P놀이 9. R-S-T놀이 10. 들어 가고 나가다. 11. 들어 가고, 나가고, 올라, 12. 들어 가고, 나가고, 올고, 13. 고양이와 어른 14. 올라가고 내려온다 15. Caps, Cups, Cubs 16. 파자 고양이 17. 뛰어라, 올라가라, 내려 가라, 들어 가라, 나오라, …로 18. Do you? 로 構成되어 있으나, 그림과 글짜가 반반에 比率로 보기 쉽게 配置되었다. 各課마다, 教師가 추천하는 冊이 平均 3卷이니 讀本 한권을 별때 54卷에 冊을 소개 받게 된다. 이 冊은 全部 學級에 備置되어 있다. 發音讀本 B의 內容은 글씨크기도 작어지고 처음서부터 文章이 나오게 된다. 目次는 19. 너는 볼 수 있니? 20. 고양이 한마리와 개 두마리 21. 나무에 올라 간다 22. 새와 드렉셀 23. 너는 누구니? 24. 저것은 누구니? 25. 갖지 않는거와 갖는 것 26. 龍과 網 27. 너는 헤엄칠 수 있니? 어디에서? 여기 저기 28. 都市親舊. 어디서? 29. 都市親舊 30. 都市거리에 내려 가다 31. 역시 都市거리에 내려 가다. 32. 세론 위한 都市거리 33. 親舊를 위하여 선물을 산다. 34. 말에서 내려라! 35. 우리들은 드렉셀이 좋다. 36. 드렉셀은 우리들을 좋아 한다. 여기 저기로 되어있다. 課題學習帳의 目次는 19-23始作이 混合된 것. 24-25 마지막이 混合된 것 26. e로 끝난 것 27-31. 始作字音의 二重字 32-34. 始作混合과 二重字 35. 終末混合과 二重字 36. 法典에서 벗어난 것 등이다. 發音記號課題 1課에서 36課까지 모두 가센드가 같이 使用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19課의 授業進行을 떠려 가며 본다. 먼저 19課의 教育目標는 始作이 混合된 子音인 경우에 말에 관해서이다. 教師가 어린이 全部를 위하여 單語 카아드를 準備한다. prize crocodile track, snake 音을 같이 한 푸린

스, 푸라우드, 푸로브, 크리브, 크리-프, 크라운, 추락크, 추라이브, 추리트, 스니크, 스내일, 스노 등 단어를 준비해 놓고 큰 소리로 읽기게 한다. 준비해 둔 카아드를 각 어린이에게 논아준다. 큰 소리로 준비해둔 단어를 읽어 간다. 어린이가 각기 읽는 단어의 카아드를 들어 보인다. 어린이의 들는 練習을 시키기위하여 始初가 混合된 子音의 單語를 많이 準備하는 活動을 한다. 말하기 연습에서는 3單語가 一式이 되는 것을 準備한다. 그 가운데 그 單語는 같은 音으로 始作한 것을 모운다. 아이들의 活動은 3單語중 같은 音은 두單語를 發音해 보고 찾고 있다. 이러한 活動을 準備된 單語가 끝나도록 되풀이하게 한다. 쓰는 것은 固有名詞를 많이 準備해 놓고 그 中 始作이 混合된 子音으로 始作된 것을 제각각 가지고 있는 초크板에 쓰게 한다. 混合된 子音으로 始作되는 單語를 包含한 文章을 準備해 놓는다. 어린이 全部가 이 文章을 次例 次例로 읽는다. 어린이에게 黑板 앞으로 나오게 하고 發音하여서 같은 音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게 한다. 總合的으로 子音混合으로 始作된 項目을 숨기고 關連性을 찾게 한다. 예를 들면 a toy dyum, a toy truck 등. 어린이 각者 초크 版에 子音이 混合되어 始作한 같은 音의 單語를 羅列시켜 쓰게 한다. 크라스속에 있는 事物의 이름과 關係되는 글짜를 맞추게 되면 큰 소리를 내어 읽는다. 先生이 黑板에 쓴 글짜와 어린이가 각者の 초크 版에 쓴 글짜가一致할 때 그들은 소리 내어 좋아 한다. 時間中 어린이 活動이 많기 때문에 바쁘고 부지런하게 각자의 課題를 따려가고 있어 보인다. 讀本 19課 너는 볼 수 있니?에 指導편을 살펴 본다. 語彙는 꽉찬다. 파자, 한다 간다. 손, 입 이야기는 龍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브랜드랏드卿이 드렉셀라 더블어 파자를 꽉친다. 드렉셀은 파자가 꽉친 것을 화덕에서 끄집어 내고 祝賀가 시작되는게 견디기 어려워졌다. 브랜드 럿드卿이 바라보는 동안 드렉셀은 커다란 파자 한 토막을 즐기며 행복해 보였다. 讀本에는 그림이 네개 그려 있다. 너는 볼 수 있니 어른이 파자 꽉친 것을? 너는 볼 수 있니, 커다란 손이 들어가는 것을? 너는 볼 수 있니, 파자가 나오는 것을? 너는 볼 수 있니, 손이 들어가고, 파자가 나오고, 커다란 입이 깨무는 것을? 문장과 더불어 그림이 그려 있었다. 先生은 말하기를 생일은 누구에게나 즐겁고 어낼 때는 파자가 꽉쳤는데 祝까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기대려 진다. 드렉셀이 그의 생일을 즐기는 동안 어린이들은 나온다 들어간다하는 말을 되풀이 한다. 생일에 관한 이야기 파티때 꽉친 파자 이야기 등, 어린이가 도와서 할 수 있는 일등 즐겁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한다. 소리내어 읽는데도 音律이 재미있게 들여 즐기며 배워 간다. 19

課가 끝난 다음 問題 1은 드렉셀 生日에 브랜드랏느경은 무엇을 했나? 그는 드렉셀 파자를 구웠다. 2. 입은 무엇을 했나? 입은 파자를 깨물었다. 3. 손은 어디에 갔나? 손은 안으로 갔다. 4. 어떤 單語가 드라콘과 같은 것으로 始作되었나? 드레스, 스-프, 츄리-드린크, 크로스, 드레스, 드린크 1番의 問題는 主題를 찾고 2番은 흐름을 쫓고 3番은 仔細하게 4番은 19課의 教育目標인 發音記號의 열쇠가 있다고 본다.

어린이와 先生과의 이야기 속에서, 너의 다음 생일에는 무엇을 할려고 생각하지? 하니까 어린이들은 각자 생일 파티 브랜을 짜고, 케익을 꽉친다. 선물을 맨든다. 꽃을 장식한다 등 多樣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케익을 구워 본 사람이 있니? 어린이 중에서 그 방법을 나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하니까, 파자 꽉친데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경험담으로 어머니가 꽉친 것을 도와 드렸다. 장식할 때 크림을 삼각 종이 속에 넣고 파자위에 글씨를 쓴다. 만일 어린이들이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계속해서 읽어가 冊을 추천해 주곤 하였다. 讀本 13에서 나오는 單語數는 148이며 讀本 A에서 120과 重複되는 것도 있고 새로 나온 것도 많다. A에서 나온 것이 B에서는 나오지 않고 B에서 새로 나오는 것이 80單語이고, A와 B에서 重複된 單語가 68單語 A에서 나온 것이 B에서 없어진 것이 52單語이다. 讀本 B까지 全體 單語習得은 200單語가 되는 셈이다.

1學年에서 理解와 語彙의 讀本이 있다. 文章은 간단하지만 文章의 길이가 讀本 A, B와는 다르다. 꽉찬 文章이 詩와 같은 音律을 가지고 있다. 目次를 보면 1課 개는 어디를 가나? 2. 개들은 노는 것을 좋아한다. 3. 더운 개! 4. 몇시야? 5. 곰을 위한 어떤 등태 6. 등에 등을 7. 들어 갔다 나왔다 하는 이상스런 오리 8. 여기 저기 9. 담에서 떨어진 이상스런 소리. 10. 어느 쪽이 위이고 어느 쪽이 밑인가? 11. 무엇이 필요한가 12. 원숭이가 나의 주위를 올리며 노래한다. 13. 너는 무엇을 들었나? 14. 스케-트 연습 15. 먹는 법이 무엇이냐 16. 무는 문이 아니다 17. 눈껌벅이는 말. 18. 한어머니는 또 다시 한 어머니가 된다이다. 課題學習帳은 文章을 만들게 試圖해졌다. 눈으로 보이는 單語를 듣는데 使用하며, 그림으로 說明하고 內容의 실마리를 잡는다. 어린이들은 글씨와 그림을 맞춰가며, 指示하는데 따라서 진행한다. 1課에서 教育目標로 하는 單語는 18單語이다. 판사, 부정판사, 크다, 적다, 보이트, 차, 개, 집, 물, 한다, 간다, 논다, 들어, 간다… 우에, …에, 아니, 어디에, …로, …등이다. 듣기 活動에서 준비할 것은 같다. 개가 간다라는 그림책을 選擇하여 그 속에 있는 單語를 教育目標에서 아르킨다. 카아드에 單語를 쓴 것을 準備한다. 처음 맨들어 둔

單語 카아드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이야기를 크게 읽는다. 어린이에게 主題가 무엇인가 물어 본다. 다음單語를 읽어 주고 그單語에 맞는 그림을 冊에서 찾아낸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그림과 맞는單語를 쓴 카아드를 높이 들어 보인다. 모든單語가 文章속에서 區別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活動을繼續한다. 말하기 指導에서는 같은單語 카아드를 준비하고 초크板에 따라서 줄을 긋고 이를 카아드를 줄 세운다. 그림 카아드를 들고 어린이에게 이름을 맞우게 한다. 딴 어린이를 불러 초크板에 가서 카아드의 관련되는 것을 이르킨다. 모든 그림 카아드가 없어질 때까지 이 활동을繼續한다. 相互作用에 있어서는 개, 차, 보트와 같은 主語의單語 카아드와 그림을準備하고 어린이에게 無言劇으로서 알아 맞우기 놀이를 시킨다. 한 어린이가 크라스앞에서 딴 어린이에게 그림 카아드의 하나를 보인다. 無言劇으로서 表現하고 딴 어린이가 그것에 맞는 것을 찾아낸다.單語 카아드를 맞는 것을 찾은 어린이는 다시 “無言劇”을 하고 다음 계속해 간다. 쓰는 것 指導에서單語 하나나 둘 以上 使用한 것으로 만든 간단한文章을 초크板에 써 놓고 같은單語로 카아드를 맨들어 초크板밑에 준비해둔다. 써 놓았든文章을 큰 소리로 읽어 주면 각 어린이가 나와서 준비해둔 카아드를 펼쳐 文章을 만든다. 모든 文章은 어린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지워진 곳을 어린이가 하나 하나 매꿔 가게된다. 讀本에 들어가서單語는 개, 차, 들어간다, 위에 큰, 적은, 없이 한다, 一에로, 어디, 보-트, 定冠詞, 접, 물, 아니, 놀이, 간다, 不定冠詞 등 배워야만 한 것이다. 적은 개와 큰 개, 모두가 차로 여행을 간다. 어디로 그들은 가나? 우리는 결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이 베가지 이야기는 75개의 基本單語로서 紹介되고, 따라서 音律이 調和를 이르킨다. 이 課는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즐겨 읽으며 問答할 것도 재미있는 課題이다. 本課가 끝난 다음 質問으로서 主題를 찾는다. 1. 개는 무엇을 하지? 개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간다. 2. 어느 개가 차위에 있나? 작은 개. 3. 개가 가지 않는 세가지 곳은 무엇인가? 개접, 보-트, 물속. 4. 너는 접속에 가니 접위에 가니? 접속으로 問2는 詳細하게 함이고 問3은 答이 있는 場所를 말한다. 問5에서 理解와單語의 教育目標의 1이 열쇠가 된다. 어린이와 先生은 이야기를 놓는다. 개는 어디로 갔다고 생각되니? 어린이는 제나름대로 개가 간 곳을 저이들이 경험한 장소로對答한다. 개는 차를 타고 가지? 그러면 차를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지? 어린이가 상상하는 모든 答을 전부 해주게 한다. 關聯되는 어린이가 좋아 할 이야기 冊 3卷을 소개해 준다. 學習이 어떻게 되었는지 post-test를 해서 結果를 表에 記錄한다.

讀書家 시리즈는 1學年에서 讀本 A,B, 理解와單語 등 모두 3卷이고 각 問題學習帳과 pre-test, post-test, 記錄表 등이 있고 가세트, 參考書籍, 先生이 추천하는 이야기 冊 1課에 3卷씩 A,B, 36×3과 理解에서 18×3卷 合하여 162卷이다. 한 學級에서 어린이 數대로 頁을 하게 되면, 學級圖書文庫의 크기도 알 수 있다. 其外에 教育機具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항상 教師는 準備에 바빴고 어린이는 問題를 풀고 또 만드기에 바빴다. 뉴 오리엔스에서는 修女가 경영하는 學校로서 幼稚園 學級서부터 6學年 까지 각 學級을 다 돌았다. 外國에서의 손님이라고 해서 萬一 한 學級이라도 둘르지 않으면 不平이 많다고 하였다. 어린이들은 서슴치 않고 對話를 自然스럽게 갖고 손님과도 나누게 된다. 어떤 어린이에게 至今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하니까, 한 쪽에 모래가 들어가서 균형을 잡게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보고 있다 하면서 열심히 장난감 같은 것을 앞에 두고 재고 있었다. 이것은 幼稚園 아이들 반에서 제각기 스스로가 알고 싶은 것을 指해해서 하고 있었다. 한 學級에 어린이 數는 10名에서 20名 정도 幼稚園에서는 한 學級에 2名씩 P.T.A에서 當番으로 나와 教師와 같이 어린이 學習을 돋고 있는 것도 보였다.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學校授業時間속에 있는 것 같이 活氣가 찬活動이 가장 自然스럽게 展開되고 있었다. 日本에서는 東京教育大學 附屬小學校 授業이 公開研究授業으로 全國에서 教師가 參觀하는 恒例로 되어 있다. 研究大會期間中은 全校를 公開하고 關聯된 學級으로 가게 된다. 한 學級의 어린이 數는 30名乃至 40名 언제나 새로운 教育을 實驗하는 學校로서 어린이도 發想의訓練이 절대 언제나 活潑한 授業態度를 볼 수 있다. 그밖에도 全國大學國語教育學會의 年次大會는 11月 中旬, 地方大學에서 열리고 8月은 언제나 東京에서 열리게 된다. 讀書에 대한 熱意는 어디나 大端하고 어린이 몸무게에 比해 감당할까하는 정도 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띠었다. 美國에서는 어린이 冊은 모두 學級에 備置시켜 놓고 學習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이 보인다. 讀書家 시리즈를 처음 對했을 때 參考書籍까지 한 課를 展開시키는데 적어도 6,7卷 解典이 必要하게 되면 그 보다 더 많은 冊을 相對하게 된다. 教室의 空間이 넓고 敷具가 整備되어 複雜性은 없지만, 어린이 스스로가 主體가되어 學習해 나가는 것은 公開된 시스템이고 새로운 感이 있었다. 아리조나 大學教育學部 附屬研究機關의 어린이들 授業은 손으로 만드는 것을 讀書敎育과 같이 導入시켜 어릴 때 手工에 대한 技能과 深세한 感覺과 創造性을 길른다고 한다. 로스안젤레스에 있는 칼리포니아 州立大學附屬의 어린이敎育에서 볼 수 있는 것은 色에 대한 表現力を 讀書敎育과도 連結시키

고 있다. 讀書教育에는 格別히 細心한 시카고大學教育學部附屬의 어린이들도 特殊한 시스템속에서 活動하고 있었다. 뉴이의 精神을 그냥 받은 實驗學校이니까, 무엇이든지 어린이 스스로가 經驗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있다. 이곳 幼稚園에서 놀란 것은 한 學級안에 3專門分野의 保母와 P.T.A. 參觀人 모두 같이 있었다. 專門分野의 하나는 粘土이고 하나는 木工이고 하나는 물감이었다. 그룹을 지어 1, 2, 3으로 次例로 둘며 3分野의 授業을 다 받게 된다. 各 分野마다 각 어린이의 備品이 整頓되어 있었다. 어린이 스스로가 멋대로 만든 것을 保母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하는 사이에 言語教育이 있고, 손으로 經驗한 것을 土臺로 한 이야기冊을 읽어 춤으로 듣기며 訓練이 되고 自身의 作品에 題目을 지어 내는데서 쓰는 것을 訓練시키고, 發想을 發表하고 全部가 같이 運動場 놀이터에 나가서 노래 불르고 發聲練習을 하게 되는順序였다. 이것을 다 마치면 點心時間이 된다. 제멋대로 놀리는 것 같지만 教育目標에 의한 限界속에서의 自由行動이었다. 讀書家 시리즈가 學級에 導入되어 그 成功의 與否는 아직 確言할 수 없으나 研究上 그 効果는 立證한 나머지 實施한 것이라 한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가 冊을 읽는다는 概念을 自覺하기 前에 스스로 讀書의 基本姿勢가 成立될 수 있다는 點은 참으로 좋은 點으로 느껴진다. 작은 스텝이지만 하나 하나 正確하게 完全히 習得하고 다음 段階로 가는 것이 쌓여 理解의 基礎 모델을 形成하는 셈이다. 새로운 것이 恒常 좋은 것은 아니지만 研究의 結果 効果의 理解方法이라면 菲자는 이 것을 추천한다.

### 〈5월의 어린이와 독서습관〉

어린이는 나라의 새싹, 내일의 역군들이다. 어른들은 이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지도 해야 한다. 어린이를 지도하는 데는 모범이 되는 생활, 모범이 되는 언행(言行)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中最한가지가 어린이들에게 좋은 책을 접하여 주도록 해주고, 그 책 읽는 면을 지도하여서 책을 통하여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고, 상상력의 풍부함, 옳바른 판단력 등 어린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어린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에서의 「어린이 독서주간」이 설정되어져 있기도 하다.

5월은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 달(月)이다.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고, 교육주간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어버이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5월 달 중에서 5일 날이 어린이의 날이다. 이 날에 우리 어른들은 어린 새싹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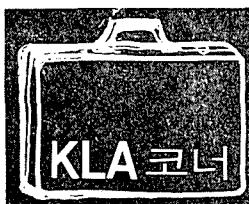
「어린이는 순진해서 좋다.

어린이는 정직해서 좋다.

어린이의 눈은 맑아서 귀엽다.

어린이의 마음은 맑아서 귀엽다.」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 납니다. 잠꾸러기



###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귀여운 입술들로 부르는 어린이들을 상상으로 그려 본다. 맑은 눈동자로 안젤센의 동화 책에 열중된 모습들을 상상으로 그려 본다. 이때의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를 마음속에 새겨서 귀여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세 살 버릇이 여든살 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버릇 즉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은 行하여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行하지 못하는 것은 습관이 안되어진 때문이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잘 行하여 지는 것은 습관화 되어진 때문인 것을 생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느끼곤 한다. “습관이 제2의 천성(Habit is second nature)이라는 말과 같이 참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습관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습관을 독서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독서의 생활화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러한 독서습관을 어린이에게 맞춰 놓으면 그 어린이의 삶은 매우 유익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독서 습관이 여든살까지 갈테니까!

어린이들에게 좋은 독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자.

어린이들에게 좋은 독서습관을 어른들이 출선수범하여 보이도록 하자.

독서습관의 생활화가 남녀노소(男女老小)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민족이 되도록하자.(時)